

# “30대 여배우? 나이 들면 못해 후회할 것들 해보자”

강소라, 영화 ‘해치지 않아’ 관련 인터뷰



배우 강소라가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해 후회할 것들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사실을 알렸다. 강소라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해치지 않아’ (감독 손재관) 관련 인터뷰에서 30대에 진입

한 것에 대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예전보다 알았고, 20대보다 30대가 훨씬 좋다. 내면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20대 강소라에게는 여러가지 조급함이 많았다. 사람들이 싫어 할까봐 걱정하고, 시간을 아껴

여러가지를 배우고 자기개발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를 위해 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강소라는 “이렇게 하면 직업에 해가 될까, 특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 나이 70세, 80세에 돌아켜볼 때 지금은 이 행동이 아닌 것일 수 있지만 ‘그 나이 때 해놔야지’ 하는 후회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것을 해보자 생각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자. 이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 선택권이 있는 것들을 누려보자 생각했다”로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뭘 되게 많이 했다. 배우는 것이 많았다. 배우들은 쉬는 시간에 여유가 많다. 도자기, 일본어, 중국어, 미술, 다 배웠다. 이제는 콤팩트하게 한다. 명상 같은 것을 한다”며 “이전에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다이어트를 하느라 사람도 못 만났는데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 쓰고, 그것에 대해 가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강소라는 ‘해치지 않아’에서 외길인생 수의사 소원을 연기했다.

‘해치지 않아’는 생계형 수습 변호사 태수가 동물원 동산파크 운영을 맡게 되고, 동물원이 없는 동물원에서 직원들에게 동물 위장근무를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오는 15일 개봉한다.

# 트와이스 지효, 사과 “루머·사생활 공개 후 불안감 커져”

채팅 도중 ‘옹앵옹’이라는 단어 등 사용 관련

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채팅 도중 ‘옹앵옹’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심경도 고백했다.

지효는 7일 새벽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어제 브이앱 채팅으로 어찌면 윈스 분들도 상처받고 실망하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미안하다”며 논란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지효는 “작년 3월 쯤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제 이름이 오르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다. 공항에서 눈물을 보였던 이유도 사람들이 저를 찍고, 저를 보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에 큰 두려움과 공포. 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너무 무서웠다”며 “그리고 8월에 제 사생활이 알려지고 그 후에는 사실이 아닌 얘기들도 나오고 그 일로 제 불안감이나 우울감, 두려움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은 너무나 커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서고, 말 한마디, 무대 한번 하는 게 많이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투어 중에도 두려운 감정이 너무 커서 병원도 찾아 갔

었고 상담도 하고 약도 복용했지만 제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며 “일본 투어가 시작 됐고 ‘마마’ (2019 MAMA) 직전에 있었던 일본 공연에서부터 사람 많은 곳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3월 공연 내내 공포감에 울었고 정말 숨고 싶었다. 그 상태로 ‘마마’를 하게 됐고 공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고 말해야 했고, 무대해야 했어서 그게 저한테는 숨쉬는 것까지 힘이 들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지효는 “데뷔하고 활동했던 지난 시간 동안 저에 대해 안 좋은 말들 조롱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수도 없이 봤고, 너무 상처 받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한 일들이 있고 제 직업이 있고 제 팬들이 있고 그랬으니 가만히 그저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효는 “동정해달라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어제 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표현까지 하게 됐는지 말하고 싶었다”라며 “가장 미안한 건 지금 우리 팀이, 또 윈스(팬클럽)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란 거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감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



멤버들까지 해명하듯 글을 올렸고 그 글들을 보면서 윈스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한 것들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지효는 지난 5일 V앱 트와이스 채널에서 팬들과 채팅을 진행하던 도중 ‘마마’ 시상식 도중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 “자꾸 관중 같으신 분들이 옹앵옹 하시길래 말씀드리는데 그냥 몸이 아팠다. 죄송하네. 저격 거리 하나 있어서 재밌었는데, 내가 몸 아픈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뉴스1

# ‘4인조 재편’ 젝스키스, 28일 전격 컴백

2년4개월만에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장수원 4인조로 재편한 젝스키스가 YG엔터테인먼트의 2020년 첫 주자로 나선다.

YG엔터테인먼트는 7일 오전 10시 공식 블로그에 젝스키스의 NEW ALBUM COMEBACK TEASER 포스터를 깜짝 공개했다.

포스터 속 명확히 새겨진 ‘2020.01.28’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젝스키스를 상징하는 노란색에, 새 앨범의 오브제인 ‘카드’를 활용해 팬들에게 전할 반가운 메시지가 담겼음을 암시했다.

젝스키스의 신보는 지난 2017년 발표된 정규 앨범 ‘ANOTHER LIGHT’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다. 특히 4인조로 재편된 후 첫 앨범인 만큼 젝스키스 멤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새 앨범 콘셉트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젝스키스는 2016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문치후 이후 YG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고 성공적인 컴백을 이뤄냈다. ‘세 단어’를 시작으로 ‘아프지 마요’, ‘슬픈 노래’까지 각종 음원 차트 최정상상을 휩쓸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13곡의 기존 활동곡이 음원차트 10위 안에 진입하는 역주행 현상으로 과거와 현재 곡이 동시에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났다.

18년 만에 발표한 정규 5집 ‘ANOTHER LIGHT’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특별해’는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비롯해 톱10에 앨범 수록곡 전부를 줄세우기



한 바도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호성적을 거뒀다. 기존 히트곡들을 리마스터링한 앨범 ‘2016 Re-ALBUM’은 국내 음원차트는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이튠즈 앨범차트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구가했다.

20주년에 발표한 앨범 ‘THE 20TH ANNIVERSARY’는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9위를 차지, 1990년대 한국 아이돌 중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저력을 재확인했다.

뉴스1

# 윤종신, 가요계 사재기 논란에 “뮤지션들끼리 싸우지 말아요”

“매시간 차트 봐서 뭐해요”

가수 윤종신이 가요계 사재기 논란에 “뮤지션들끼리 싸우지 말자”고 밝혔다.

윤종신은 7일 자신의 SNS에 “싸우지 말아요. 애꿎은 뮤지션들끼리”라며 “판이 잘못 된 걸, 매

시간 차트 봐서 뭐해요”라며 플랫폼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No Stats in Platform. 플랫폼은 ‘나’에게 신경써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가 실시간 차트를 메인으로 내세운 각 음원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종신은 지난해 뉴스1과 인터뷰에서 “순위가 중요시되는 음원 사이트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넷플릭스 등과 같이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추천만이 필요할 뿐, 수직적 차트 표기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2관	백두산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미드웨이
6관	시동
7관	백두산
8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캣츠
9관	백두산, 캣츠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시동
2관	미드웨이
3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4관	백두산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미드웨이, 눈의 여왕, 프린스 코기
6관	겨울왕국2,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